

II. 경제·정치 동향

1. 경제 동향

가. 국내경제

<표 II-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제성장률	10.9	11.1	11.6	8.7	7.0
재정수지/GDP	-3.8	-3.7	-2.7	-2.3	-2.5
소비자물가상승률	12.3	17.2	44.4	8.5	7.0

자료 : IMF 및 EIU.

□ 2009~10년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증가와 이에 따른 농산물 가공업의 호조, 2005년 선거 후폭풍으로 발생한 사회불안 해소 후 다시 증가한 원조국의 공여를 기반으로 2007~08년에는 11%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달성하였음.

II. 경제·정치 동향

- 200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해외근로자의 국내송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2008/09년 경제성장률은 8.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해외근로자의 국내송금, 수출 및 투자가 2009년의 침체에서 느리게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09/10년에는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신규 댐 건설로 전력 부족 다소 완화, 제도 개선 및 규제 철폐, 인프라 개선, 2010년 5월 총선 후 정치적 안정 등으로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서 경제성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세수부족 등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지속

- 수년간의 고도성장에 따라 재정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거시지표상 불균형이 나타남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는 상대적으로 긴축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2002/03년 가뭄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8.1%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보이면서 감소세를 보여 왔음.
- 그 결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2007/08년에 2.7%를 기록한 데 이어, 2008/09년에는 2.3%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경기 침체 및 물가상승률 하락으로 긴축재정 정책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9/10년에는 2.5%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조세징수 시스템이 열악하고 정부수입이 GDP의 약 16~17% 수준에 불과하여 아프리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

수지의 상당 부분을 원조국의 공여에 의존하고 있음. 원조국의 공여를 제외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GDP의 2~3%대보다 훨씬 높은 6~7%대를 기록할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는 조세징수기관을 통합하고 세수기반 확대, 탈세 축소 등의 조치를 실행하여 정부수입을 늘리고, 지속적으로 원조국의 지원을 받는 한편, 공공지출 관리를 개혁함으로써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시킬 계획임.

□ 양호한 농작물 작황 등으로 물가상승 압박요인 완화

- 가뭄으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 소비자물가지수의 57%를 차지하는 식료품 가격 급등 및 유가 상승 등으로 2007/08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44.4%를 기록하였음.
- 2008/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식료품 가격의 하락, 원유 가격의 하향 안정,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 실시 등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8.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9/10년에는 농작물 작황이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르화의 가치 하락²⁾으로 인한 수입가격 인상,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국제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2) 높은 물가상승률 및 외환보유액 부족 등 비르화의 가치하락 요인들로 인하여 2009년 평균환율은 전년 대비 23% 상승한 미 달러당 11.78비르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도 전년 대비 15% 상승한 13.56비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나. 대외거래

<표 II-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 상 수 지	-1,786	-828	-1,806	-2,143	-2,184
경상수지/GDP	-11.8	-4.3	-6.1	-7.3	-7.6
상 품 수 지	-3,081	-3,871	-5,652	-5,348	-5,606
수 출	1,025	1,285	1,555	1,657	1,704
수 입	4,106	5,156	7,206	7,005	7,311
외 환 보 유 액	867	1,290	871	1,781	..
총 외 채 잔 액	2,273	2,621	2,882	3,615	4,223
총외채잔액/GDP	15.1	13.7	9.7	12.3	14.7
D. S. R.	15.1	5.0	3.2

자료 : IMF 및 EIU.

□ 석유 및 자본재 등의 수입에 따른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기조

- 에티오피아는 원조국들의 지원,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유입 증가 등으로 매년 30~40억 달러 규모의 경상이전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기계류, 원유 등의 수입 증가로 50억 달러 규모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해외근로자의 송금액 급감 등으로 경상이전수지 흑자가 감소(전년 대비 8.2%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증가(전년 대비 65.2% 증가)하면서, 2009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악화된 GDP의 7.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에는 경제성장세 지속, 국제 상품가격의 상승, 인프라 사업을 위한 자본재 수입 등으로 수입 증가액이 수출 증가액을 넘어서면서 상품수지 적자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점진적 증가세, 관광업 수입 증가, 지속적인 원조자금 유입 등으로 경상수지 적지는 GDP의 7.6%를 기록할 전망이다.

□ 원조자금 유입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세

- 2009년 8월 IMF의 외부충격기금 (Exogenous Shocks Facility : ESF)³⁾ 지원 및 원조공여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9년 말 외환보유액은 18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러나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이 아직 권고 수준인 3개월분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임.

□ 2004년 HIPC Completion Point 달성 이후 외채상황은 양호한 편

- 2004년에 에티오피아는 고채무빈국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 HIPC) 완결시점 (Completion Point)에 도달함으로써 13억 달러의 외채가 감소한 이래, 2007년부터는 DSR이 5%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도 1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외채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됨.

3) 외부충격기금 (ESF) : 외부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으로 저소득국의 국제수지 균형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수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IMF가 지원하는 양허적 성격의 기금

다.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II-3>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기관명	현행등급	종전등급
OECD	7등급 (2009. 10)	7등급 (2008. 10)
ICRG	127/140 (2010. 5)	118/140 (2009. 6)
Euromoney	145/186 (2010. 3)	127/186 (2009. 9)
I. I.	154/178 (2009. 9)	150/175 (2009. 3)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 : Short-Term Insurance Pilot Program (STIPP)
경우 인수가능
- ECGD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제한적 중기
인수
-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외채상환태도

- 에티오피아는 HIPC 이니셔티브를 통한 채무탕감으로 외채상환
부담은 낮은 편임.
 - 2001년 HIPC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시작한 에티오피아는
2004년 4월에 완결시점에 도달하면서 13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
받았음.

-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 (Export Credit Agency : ECA),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
- OECD 회원국 ECA의 대 에티오피아 지원현황 (2009년 6월말 기준) : 총지원잔액은 단기 4,070만 달러 및 중장기 4억 9,000만 달러로 연체금액은 없음.
- IMF나 세계은행에 대해서도 연체현황은 없음.

2. 정치·사회 동향

가. 정치 동향

□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의 장기 집권

- 군부를 중심으로 티그레이인민해방전선(Tigray People's Liberation Front : TPLF)과 암하라민족민주운동(Amhara National Democratic Movement : ANDM) 등이 연합하여 결성된 인민혁명민주전선(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 EPRDF)이 1991년에 멩기스투 당시 대통령을 축출한 이래 장기 집권하고 있음.
- 집권여당인 인민혁명민주전선은 외국 원조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빈곤퇴치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음. 이에 따라 2005년 5월에 실시된 인민회의 의원선거에서도 인민혁명민주전선이 의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반의석을 확보하였으며, 1995년부터 계속 집권해 온 멜레스 제나위 총리가 재집권하게 되었음.

□ 2010년 5월 총선에서 인민혁명민주전선의 압승

-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2010년 5월 23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인민혁명민주전선이 인민회의 총 547석 중 545석을 차지하면서 거의 100%에 가까운 압승을 거두었음. 반면, 야당들은 2005년 선거에서 200석을 차지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2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음.
- 그러나 2005년 선거 후 야당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발생한 시위를 정부가 강력히 탄압하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은 경험 때문에, 이번 선거 후에는 야당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05년 선거 후폭풍 이후 언론, 시민사회 및 정치자금 등에 대한 구속적인 법률들이 통과되면서, 정치적 자유가 많이 약화되었고 야당도 세력기반을 많이 잃게 되었음. 한편, 미국 및 EU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암묵적으로 현 집권여당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멜레스 제나위 총리의 재집권 전망

- 2010년 5월 총선 결과에 따라, 멜레스 제나위 총리가 당초에 밝힌 사임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5년간 재집권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함께, 인민혁명민주전선은 2010년 9월 차기 의회에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차기 지도자를 육성할 것으로 전망됨.

나. 사회 동향

□ 정치·경제적 사회불안 요소 상존

- 80여개 이상의 종족 및 종교간 마찰로 인해 정치·사회적 불안이 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세계 최저 수준의 생활여건과 경제 환경 등으로 사회 안정도가 매우 낮음.
- 에티오피아는 2009년 10월에 발표된 UN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보건 위생환경 악화, 빈곤, 기초교육 부재 등으로 인해 177개국 중 171위를 차지하였으며, 절대빈곤층 비율이 총 인구의 40%를 상회하고 있음.

다. 국제관계

□ 에리트리아와의 국경분쟁 교착상태

- 1993년에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한 에리트리아와의 국경분쟁이 1998년에 전쟁으로 비화되어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2000년 5월에 에티오피아가 승리하면서 표면상으로는 종전되었음. 종전 이후 UN 평화유지군(UN Mission in Ethiopia and Eritrea : UNMEE)이 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에리트리아 영토 안쪽 25km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에티오피아군의 철군절차를 진행하였음.
- 2000년 평화협정 체결 당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 PCA)가 에리트리아-에티오피아 중립국경위원회

(Eritrea-Ethiopia Boundary Commission : EEBC)를 설립하였으며, 양국은 국경 결정에 관한 EEBC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사전 합의를 하였음.

- 그러나 2003년에 EEBC가 기존 에티오피아에 속해 있던 바드메 (Badme) 지역을 에리트리아 영토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에티오피아는 불만을 나타내며 EEBC의 국경문제에 대한 판결을 부정하였음. 결국 2007년에 EEBC는 국경문제를 양국간의 합의 사항으로 남겨둔 채 활동을 마무리하였음.
- 양국간 국경문제는 외교적 합의를 이루려는 다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완충 지대에 주둔하면서 분쟁방지 역할을 하던 UN 평화유지군도 철수한 상황이어서 갈등의 불씨가 계속 남아있음.

□ 2009년 1월 소말리아 철군 마무리

- 2006년 12월 에티오피아는 소말리아 과도정부(Transitional Federal Government : TFG)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말리아 이슬람법정연대(Union of Islamic Courts : UIC)를 공격하였음.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당시 이슬람법정연대 소탕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수도 모가디슈 (Mogadishu) 탈환에 성공하였음.
-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온건 이슬람파들과의 화해로 2009년 1월 에티오피아 주둔군은 철군을 마무리하였으나, 소말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지역 이해 보호와 국내 안보를 위해 소말리아의 정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 지부티의 항만을 통해 수출입 물류 운송

- 육지로 둘러싸인 에티오피아는 1998~2000년 에리트리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에리트리아에 있는 아사브 (Assab) 항으로의 접근이 차단되자, 지부티를 통해 수출입 물류를 운송하게 되었음. 현재 양국간 우호관계 속에서 에티오피아 무역의 98%가 지부티의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기타 주변국과의 관계

- 최근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리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 국인 수단과 예멘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를 흐르는 나일강 지류인 청나일 강의 이용을 둘러싸고 이집트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미국과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에리트리아와의 국경분쟁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9·11 테러 이후 에티오피아가 미군에 소말리아 이슬람 무장단체를 소탕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제공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짐.
- 특히 에티오피아의 EEBC 판결 불복종에 대해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었을 때에도 에티오피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의

비호 하에 에티오피아와 미국의 군대가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등 군사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음.

3. 성장 동인 및 장애 요인

가. 성장 동인

□ 커피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세

- 에티오피아의 총 수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커피는 2001/02년에는 수출금액이 1억 6,00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2007/08년에는 전년동기 대비 23.6% 증가한 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최근에는 단순한 원두 수출에서 나아가 커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관련부처의 개편을 단행하는 등 커피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원예업 성장

- 고산지대의 온화한 기후조건, 원예업에 대한 5년간의 면세기간 혜택, 유리한 토지 임차조건 등 정부의 지원책 등을 기반으로 최근 에티오피아의 원예업이 급성장하고 있음. 주요 작물인 꽃은 2007/08년 수출금액이 1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75.8% 증가하였음.

- 2006년에 개장된 볼레 (Bole) 국제공항의 화물터미널 덕분에 유럽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에티오피아의 원예업 경쟁력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유럽지역 화훼업자의 적극적인 투자 등에 힘입어 원예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관광업 발전 가능성 보유

- 에티오피아는 고대 악숨 제국 및 기독교 관련 유적지, 천혜의 자연 환경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관광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또한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 AU)과 UN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 UN ECA)의 본부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고, 아프리카 동북부 허브공항의 위치를 점하고 있어 컨퍼런스 부문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음.
- 아디스 아바바 지역에 세계적인 호텔체인 도입 등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정부는 2010년까지 연간 관광객 50만 명 유치, 2020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0대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석유 탐사작업 진행 중

- 역내 주요 석유 생산국인 수단, 유전지대가 에티오피아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티오피아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석유 탐사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페트로나스(Petronas)는 2005년부터 석유 탐사권을 획득, 석유 탐사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영국 및 미국계 업체가 탐사작업을 진행 중임.

□ IMF의 외부충격기금 지원

-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 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초 식료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경제활동이 타격을 받은 데 이어, 2009년 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등 거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IMF는 2009년 8월 에티오피아에 대한 1억 5,000만 SDR (약 2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외부충격기금 (ESF)을 승인하였음.
- 재정 및 통화정책 등에 대한 IMF의 정책적인 권고 및 구조적인 조정과 함께 외부충격기금을 활용한 긴급 금융지원은 다른 원조 자금과 함께 대외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등 경제상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장기 식량자급계획 PSNP 진행 중

- 2002/03년에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식량부족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에티오피아의 식량자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의 대외식량원조 의존율을 낮추기 위한 생산안전망 프로그램(Productive Safety Net Programme : PSNP)이 EU 및 세계은행 등의 공조 하에 2005년부터 시행 중임.
- 동 프로그램은 기존의 식량원조 위주에서 벗어나 식량과 공적자금을 동시에 지원하고 사업 시행을 통해 식량자급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있으며, 사업규모는 연간 2억 달러로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음.

-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통한 노동자 앞 임금 지급, 지역시장 활성화, 역내 농작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도로 인프라 개선, 가뭄 시 긴급구호펀드 설치, 공공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 앞 소액금융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2010년에는 약 800만 명의 에티오피아 국민이 PSNP를 통해 생활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IMF 방식의 장기 경제개발정책 PASDEP 추진 중

- 1991년 집권 이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은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개발정책을 모델로 개방·실용 위주의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해 왔음. 에리트리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주요 원조국과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으나, 전쟁 종결 후 빈곤 해소를 위한 개혁모범 국가로 인식되면서 원조 규모가 점증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는 경제개발정책으로 2001/02년부터 2005/06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퇴치 프로그램(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Programme : SDPRP)을 추진한 데 이어, 2006/07년부터 현재까지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 가속 및 지속계획(PASDEP)을 수행하고 있음.
- 2010/11년까지 계속되는 PASDEP는 농업을 통한 산업화를 모토로 거시경제 정책, 산업구조 개편, 인프라 확충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실행계획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총 사업규모 252억 달러 중 약 30~40%는 원조자금으로 충당되고 있음. 현재 에티오피아 정부는 PASDEP의 뒤를 이을 국가개발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의 주요 원조기관인 세계은행도 3년 단위의 국가지원 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 CAS)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PASDEP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 지원전략은 2011년 중반에 마무리 될 예정임. 국가지원전략은 경제성장 도모,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개선, 안정적인 식량 확보, 지배구조 개선 등 4개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나. 장애 요인

□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 농업부문이 에티오피아 GDP 및 총수출의 각각 40% 및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구의 85% 가량이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에티오피아는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특히, 에티오피아의 주요 수출품인 커피는 총수출의 35~40%를 차지하고 있음.
-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로 인해 연간 강수량, 농산물의 국제가격 시세 등 외부적인 요인들이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08/09년 농업부문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4%로 최근 6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열악한 농업환경 및 자원 훼손

-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고산지대에서만 농산물 재배가 가능하고, 그것마저도 관개시설 부족으로 인해 전적으로 강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고질적인 가뭄,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하천 범람도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 또한 인구과밀로 인해 최근 10여 년간 농업지역인 고산지대의 지질이 악화되고 토양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 인근의 산림자원은 건축자재 및 연료 등으로 과도하게 활용되며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임.

□ 전기 공급의 불확실성

- 이탈리아 살리니(Salini)사가 건설하여 2010년 1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에티오피아 최대 규모의 Gilgel-Gibe II 발전소(420MW)에 가동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에티오피아 국영전력회사인 Ethiopian Electric Power Corporation은 동년 2월부터 주요 산업에 대한 전기 공급을 50% 이상 감축하였음. 이러한 결함을 수정하여 전력 공급을 정상화하는 데 적어도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09년 말 에티오피아 북부에 위치한 300MW 규모의 타카제담(Takeze Dam)도 전력 생산을 개시하였으나 저수량의 부족, 예하 발전소인 코카담(Koka Dam)의 화재 발생 등으로 시작부터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에티오피아는 열악한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잦은 사고와 오류, 운영 미숙 등으로 인해 국가산업 전반에 대한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향후 이러한 전력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능력이 향상되어 최근 확대 건설되고 있는 발전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에티오피아는 주변국가에 대한 전력 수출을 통해 대외수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